하나된 열정
하나된 대한민국

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- 생산적 금융
- 신뢰받는 금융
- 포용적 금융

보도	'18.1.25(목) 14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2018.1.25.(목)

책임자		담당자	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	최 치 연 사무관 (02-2100-2991) 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993)
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	서 나 윤 사무관 (02-2100-2611)
	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(02-2100-2630)	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632)
	금융위 신용정보팀장 이 한 진(02-2100-2620)		오 유 정 사무관 (02-2100-2621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24)
	서민금융진흥원 자활총괄부장 유 재 욱(02-2128-8305)		이 민 기 과장 (02-2128-8323)
	서울보증보험 개인고객부장 조 성 용(02-3671-7791)		박 진 용 팀장 (02-3671-7788)

제 목 :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·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
-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'포용적 금융' 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

■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
- 11.2조원의 서민금융 공급, 최고금리 인하,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- 청년 소액금융 · 채무조정 지원 강화,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
- 연체가산금리 인하,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 단계별 채무자 보호 강화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,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 강화

■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
-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: 2.15조원 → 3.15조원
- 주요 금융그룹,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'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: ('17) 年 3.5조원 → ('22) 年 7조원
-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 및 금융소비자 안내 강화

1 행사 개요

□ **최종구 금융위원장**은 '18.1.25일(목) **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, 유관기관**과 함께 **금융혁신 4대 전략** 중 '**포용적 금융**' 관련 **2018년 정책방향**과 대표과제인 **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**을 논의함

► 일시 및 장소 : '18.1.25.(목) 14:00 ~ 15:30,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
► 참석 : 금융위원장, 중소금융국장, 금감원, 8개 주요은행,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서울보증보험, 서민금융진흥원 등

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: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

□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, 생산적 금융, 경쟁 촉진과 함께 **포용적 금융**을 **적극 추진**

○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**신뢰가 중요**하나, 그간 **서민지원·사회적 책임 이행**에 있어 **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*** 상황

* 서민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, 채무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,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, 약탈적대출 등 불완전판매

○ 금리인상 기조, 양극화 등 **경제·사회 전반이 변화**하는 상황에서 **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**을 금융이 **적극 지원**할 필요

□ 2018년중에는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**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**할 수 있도록 유도

○ **소극적 금융공급**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❶**서민 금융부담을 완화**하고, ❷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**금융지원 제공**

○ 그간 금융권의 **불합리한 관행**을 쇄신하여 ❸**취약채무자**에 대한 **보호를 강화**하는 한편, ❹**사회적 책임을 강화**

➡ 금융이 **"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"를 구현**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**포용적 금융**을 차질없이 추진

3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

1.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

□ **(서민금융 공급)** '18년 **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 11.2조원** 공급
○ (정책서민자금) 연 **7조원** 공급여력 확보(안전망 대출 포함)
○ (중금리대출) ('17) 연 **3.5조원** → ('18) 연 **4.2조원** → ('22) 연 **7조원**
- **사잇돌대출** : '18년중 **공급한도 1조원 확대** (2.15조원→3.15조원)

□ **(최고금리 인하)** '18.2.8일부터 **24%로 인하**(27.9%→24%)

□ **(카드수수료) 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**(편의점·슈퍼·제과점 등, '18.7월)
※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('17.7월 시행), 영세·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('18.11월 방안 마련, '19.1월 시행)

2. 청년, 중 · 장년,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

□ **(청년층) 소액금융**(취업준비·비주택 주거자금 등) **확대, 채무조정 지원 강화**
○ 청년병사에 대한 **저축상품** 개선(월납입한도 상향 등)

□ **(중·장년층) 서민·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 확대**(250/200→400만원)

□ **(고령층) 퇴직·개인연금** 수익률 제고, **주택연금** 수급혜택 확대

3.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

□ **(연체발생 前) 사전 상담·관리** 강화, **원금상환 유예** 강화

□ **(연체발생) 연체가산금리 인하**, 부실채권 매각 제한

□ **(연체 장기화)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·소각**

4.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

□ **(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) 사전 정보제공** 강화, **판매규제** 강화

□ **(개인신용평가 개선) 평가절차·지표 공개** 강화, **평가결과 개별고지** 강화

□ **(사회적금융 활성화) 미소금융·신보** 지원, **사회투자펀드**(300억원) 조성

참고 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

	<과제>	<주요내용>
서민의 금융부담 완화	서민금융 공급	**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** (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보 등) **중금리대출 활성화** (중금리대출 4.2조원 공급 등) **주택금융 지원 확대** (신혼부부·다자녀가구·실수요자 혜택 확대)
	최고금리 인하	**최고금리 인하** (27.9% → 24%)
	카드수수료 부담 경감	**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** **영세·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**
청년, 중·장년,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	청년층 지원	**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강화** (소액금융 확대,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) **청년병사 저축상품 개선** (월납입한도 상향 등)
	중·장년층 지원	**ISA 혜택 확대** (비과세한도 확대, 제도 개선 등)
	고령층 지원	**퇴직·개인연금 수익률 제고** (세제혜택 확대,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) **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** (신탁방식 도입, 실거주 요건 완화 등)
취약채무자 보호 강화	연체발생 前 사전예방	**연체 방지** (사전 상담·관리 강화, 원금상환 유예 강화)
	연체발생시 부담 완화	**연체자 보호** (연체가산금리 인하 등) **채권추심 규제 정비** (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, 채무자 권익 보호 등)
	연체 장기화시 재기 지원	**소멸시효완성채권 상시 자율소각** **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·소각** (전담기구 설립 등)
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	금융소비자보호 강화	**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** (사전정보 제공 강화, 판매규제 강화,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) **소비자 중심 금융혁신** (금융소비자 옴부즈만, 현장방문 등) **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** (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)
	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	**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** (평가절차·지표 공개 강화,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)
	사회적금융 활성화	**사회적금융 활성화** (미소금융/신보 지원 확대, 사회투자펀드 조성, 평가체계 마련 등)

4 「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」 주요내용
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

< 추진 방향 >

□1 **(공급 확대) 중금리 대출이 안착**되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 지속 → **공급한도 1조원 증액** (2.15→3.15조원)

○ 동시에 **주요 금융그룹, 인터넷전문은행** 등이 선도적으로 **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**토록 적극 장려

□2 **(제도 개선)**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**취급 인센티브를 확대**하고, 정보공유·분석 관련 **규제개선 추진**

□3 **(유관기관간 협력)** 서민금융진흥원, 보증보험 등 유관기관도 **소비자 정보제공, 정보공유** 등 분야에서 **적극 협력**

⇨ **'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 확대**

* ('17) 年 3.5조원(사잇돌 + 민간자체) → ('22) 年 7조원

1. 사잇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

□1 **(사잇돌) 금리상승**에 따른 **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** 등을 감안하여 **공급한도**를 **1조원 확대** (2.15 → 3.15조원, '18.上)

○ 소비자가 보다 **유리한 조건으로 대출**을 받을 수 있도록, 그간의 실적·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**대출한도 확대** 등 **제도 개선**도 추진

개선 대상·방향	현행	시기
대출 심사기준 ↓	보증보험 신용평가기준 등 (개인별 대출한도 등에 영향)	'18.上
대출 자격요건 ↓	[소득] 800~2,000만원 이상, [근로기간] 5~6개월 이상 등	
보증료율 ↓	(평균) 은행 2.7%, 상호금융 2.8%, 저축은행 6.0% ('17.말)	'18.3Q
최대 대출한도 ↑	2,000만원 (일부 상품의 경우 300·1000만원)	

□2 **(민간) 5대 금융그룹, 인터넷전문은행** 등을 중심으로 **'22년**까지 **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**를 **7조원**으로 **확대**

* **年 공급규모**('17→'22) : **[5대 금융그룹]** 0.9조원 → **2.4조원** / **[인터넷은행]** 0.9조원 → **3.1조원** / **[여타 금융기관]** 0.9조원 이상 → **1.5조원 이상**(예상)

○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**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한 **신용평가 고도화, 고객 편의제고** 등 추진 예정

- **(신용평가)** 그룹내 **계열사**간(보험·카드 등), **인터넷은행 비금융**(유통·통신) **주주사 정보 등 결합** →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

금융·신용정보		비금융 정보(예시)
• **(CB사)** 신용등급, 연체, 대출액 • **(금융사)** 고객의 소득·직종·연령·성별, 대출액, 상환액 등	+	• **(유통)** 소비성향, 패턴 • **(통신)** 통신요금 납부 실적 • **(IT)** 택시앱 등 정보

- 일부 금융그룹은 계열사가 활용하는 **통합 신용평가모델** 개발 중

- **(고객편의 제고) 마케팅, 연계대출** 등 확대
- **(조직역량 집중)** 중금리 대출 **전담조직 설치**, 직원 교육, KPI 반영 강화

2.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

□1 **(인센티브) 저축은행업권에 도입**된 중금리 대출 취급 **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·신협**업권으로 확대 ('18.下)

구분	업권	규제내용 및 인센티브
현행	저축은행	■ **(규제)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**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**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**(30~50%) 이상으로 유지 ■ **(인센티브)**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**150%로** 인정 → **중금리 대출 취급이 규제 준수**에 유리
확대	여전	■ **(규제)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**을 **30%이하로 유지** ■ **(인센티브 예시)** 중금리 대출은 **80%로 축소** 반영 * 예) [(중금리) 30 + (일반대출) 5] / (본업) 100 → (중금리 24로 반영) → 29%
	신협	■ **(규제)** 비조합원에 대한 **신규대출·어음할인**이 **전체 신규대출·어음할인의 1/3 초과** 불가 ■ **(인센티브 예시)**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**150%**로 확대 인정 * 예) (비조합원) 40/[(조합원 중금리) 50 + (여타) 50] → (중금리 75로 반영) → 32%

○ 중금리 대출 **공시강화***, 중금리 대출 취급 **우수 금융기관 포상** 등을 통해 **자율적인 경쟁 유도** ('18.下~)

* [현행] 중금리 대출 상품별 금리 등 (업권 협회) → [개선] 상품별 취급액 추가

□2 **(제도 개선) 빅데이터 분석 지원*** 및 **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**** → **신용평가체계 고도화** 및 **중금리 대출 상품개발** 촉진

* 빅데이터 분석·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(신정법 개정),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·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 등

** 예) 상품·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 ('18.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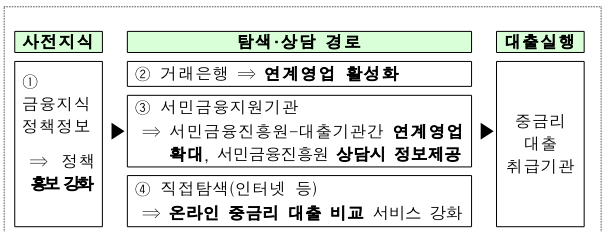
[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(예시)]

빅데이터	분석	적용	대출 공급
• 금융기관 보유정보 • 타기관 보유정보 결합 * 예) 통신 + 금융 비식별 정보 활용	▶ • 상관관계 식별 * 예) 통신료 납부 실적 ↔ 연체율	▶ •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• 상품개발 * 예) 통신사 고객 전용 상품	▶ • 상환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 식별 → 금리인하 * 예) 통신요금 성실 납부자

※ **'18.2월** 중 **「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」** 마련 예정

3.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

□1 **(소비자 안내)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** 등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**대출 탐색·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강화**



① 중금리 대출 비교공시('금융상품 한눈에', finlife.fss.or.kr), 대출상품 조회('맞춤대출', loan.kinfa.or.kr), 전화 상담(☎1397) 등을 생활 곳곳에서 안내

② 일부 금융그룹 등의 One-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등 확산

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

④ 대출상품 비교·추천 사이트('맞춤대출')상 비교 대상 상품 확대

□2 **(정보 공유)**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**신용평가에 활용**되는 **정보를 확대*** → **신용평가 정밀화 촉진**

* 사잇돌 대출 취급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유(서울보증보험 →금융기관),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·상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활용 확대 등

○ **협력체계 구축**을 위해 **금융당국·유관기관**이 참여하는 **「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」** 구성('18.上)

⇨ **(기대 효과)** 중금리 대출 **공급규모**가 年 **7조원으로 확대**시 **年 70만명**(건수 기준)의 **연간 금리부담**이 **약 3,500억원** 완화 예상

○ 금융기관의 **금리 경쟁력** 및 **자산 건전성 향상**,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**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** 등도 기대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사잇돌 대출** : **중·저신용자**에게 **적정 금리**의 **자금 공급**을 목적으로 **서울보증보험**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**중금리 보증대출상품**
- **CB사**(Credit Bureau, 개인신용조회회사) : 금융기관, 기업 등으로부터 **신용정보를 수집**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**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**를 **금융회사 등에게 제공·판매**하는 회사

<별첨> 1. 금융위원장 모두말씀
2.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